

연변팀 끝까지 투지 발휘했다! 3위팀 안방서 승점 수확

— 연변팀, 원정서 중경동량룡에 1대1 무승부



현지건이 속도를 내세운 측면 돌파로 이날 로난의 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8월 25일 19시 30분, 령상 40도를 웃도는 중경시 동량룡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중경동량룡팀(이하 '중경팀')과의 용호대전(龙虎大战)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8월 24일 오전에 진행된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중경팀 감독 우원위는 "이번 주는 중경의 일년 중 가장 더운 때이다. 래일의 경기에서 우리는 각종 곤란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고 말했고 조화정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졌지만 돌아와서 중점적으로 목적성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 래일 중경의 축구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목표를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승리를 약속한 바 있다.

5라운드 무승을 앓고 있는 중경팀과 8라운드 무승의 늪에 빠진 연변팀의 경기가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경기를 앞두고 51.0%의 축구팬들이 중경팀의 승리를, 39.4%의 축구팬들이 연변팀의 승리를, 9.6%의 축구팬들이 무승부를 점쳤다.

이날 경기에서 중경팀은 30번 진소

를 문지기로, 3번 라안동, 31번 조화정, 20번 호정, 24번 류명사로 수비라인을, 14번 황희양, 43번 소곤, 10번 타베케로 미드라인을, 8번 리진전, 29번 우지치, 7번 향여망으로 공격라인을 각각 구축하여 4-3-3 전형으로 나왔다. 그리고 연변팀은 19번 동가림을 문지기로, 5번 리달, 3번 왕봉, 15번 서계조, 2번 현지건으로 수비라인을, 24번 리호결과 20번 김태연으로 뒤편을, 6번 리강, 10번 이보, 11번 아블레다로 공격라인을 각각 구축하고 9번 로난을 원톱으로 내세워 4-2-3-1 전형으로 맞섰다. 주심판은 감속 출신의 고종초였다.

짧은 탐색전을 시작으로 경기 3분 만에 첫 코너킥을 가져간 중경팀이 경기 주도권을 잡는 듯했지만 연변팀은 침착하게 맞서 '홈장룡'이라 불리는 중경팀에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현재까지 중경팀이 6승 2무로 홈장불패의 기록을 세웠다면 연변팀은 원정경기에서 단 한번 승리한 기록 밖에 없다. 중경팀의 첫 슈팅은 6분 만에 나왔지만 동가림이 가볍게 거둬들였다.

8분경, 서계조가 대항 가운데서 가벼운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서 간

단한 치료를 받았다. 10분경 아블레다의 강행 돌파가 중경팀의 문전 앞숏까지 이어졌으나 상대 문지기에 막혔다. 개인 속도를 리용한 아블레다의 변선 공격이 날이 서면서 연변팀은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으며 12분경, 첫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강이 올린 공은 그대로 골문선 밖으로 날아지났다. 경기 18분경, 이보가 공 쟁탈 과정에 발을 높이 들어 경기 첫 열로카드를 받았다. 중경팀의 두번째 코너킥은 20분경에 나왔고 올린 공을 로난이 머리로 쳐냈다.

경기 30분까지 중경팀이 장면 우세를 차지하고 5, 6차의 슈트를 날렸다면 연변팀은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었다. 36분경, 현지건의 변선 돌파를 리용한 한차례 공격에서 로난의 침착한 슈트로 선제골을 뽑고 연변팀은 1:0으로 앞서나갔다. 끈질긴 전체 배합 및 방어와 훌륭한 개인기를 리용한 결과였다.

경기 41분경과 44분경, 중경팀의 타베케의 변선 공격과 슈트 비교적 위협적이었으나 동가림의 선방에 막혔다. 48분경 육심 많은 로난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중경용기!"와 "승리하자, 연변!"을 외치는 쌍방 축구팬들

의 응원소리 가운데 전반전은 연변팀이 한풀 앞선 상태로 끝났다.

중경팀은 17번과 21번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46분경 김태연의 반칙으로 중경팀이 매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그것이 연속 두번의 코너킥으로 이어지면서 연변팀의 문전을 압박했다. 49분경, 동가림이 목부위의 진통을 호소하면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추격에 나선 중경팀이 수차례의 전면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연변팀의 강력한 수비에 막혔다.

중경팀의 공격모드와 연변팀의 방어모드가 부딪힌 가운데 62분경, 연변팀에서 선수 교체 카드를 꺼냈다. 23번 왕성페로 부상당하고 옐로카드를 받은 이보를, 26번 허문광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김태연을 교체했다.

경기 시작부터 활황이 좋았던 아블레다는 중경팀의 '중점보호대상'이 되어 수차례의 협공을 받았고 체력 소모가 많았다.

71분경, 중경팀이 한차례의 공격에서 기회를 잡고 7번 향여망이 연변팀의 골문을 가르면서 동점골을 뽑았다. 경기는 잠시 1대1로 손잡았다. 연변팀에서는 38번 장오개로 체력 소모가 많은 현지건을 교체했다. 76분경, 로난이 한차례 반격에서 추가골을 뽑았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83분경, 림대준으로 부상을 호소한 아블레다를 교체 출전시켰다. 3명 용병중 로난만 남았다. 후반전 경기는 8분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추가 시간 6분경, 금방 출전한 림대준이 로용개저로 교체되었다. 고온 날씨와 치열한 경기로 체력 소모가 많았으며 두 팀은 최종 1대1로 손잡았다.

후반 24일 저녁 무석오구가 원정경기에서 청도홍사를 제압하고 15점을 기록, 연변팀과의 점수 격차를 4점으로 좁혔고 25일 오후에 흑룡강방성이 남경도시를 제압하고 21점을 기록, 연변팀을 추월하여 11위를 차지하면서 연변팀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연변팀은 돌아오는 9월 1일 19시 30분에 석가장공부와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 김태국 김파 기자

「특독 관전평」

‘혼신의 수비’ 연변팀 30회 슈팅 차단하며 강팀 묶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3위팀인 데다 원정이었다.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선수들은 정신력으로 버텼다. 혼신의 힘을 다한 수비로 지지 않는 경기를 했다.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25일 저녁에 펼쳐진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0라운드 경기에서 슈퍼리그 진출을 내다보는 강팀 중경동량룡팀(이하 '중경팀')과 1대1로 빅이며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쟁취했다.

예상대로 중경팀의 화력은 상당했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공격력을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경기후 기술통계표에 따르면 중경팀은 30회나 달하는 슈팅을 퍼부었다. 다시 말해 우리 팀 문전이 적어도 30회 수비 고비를 맞았다는 방증이 된다.

거기에 공 통제율은 63.8%를 기록한 데다 패스가 445차로 연변팀의 36.2% 점유율, 265차 패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대가 높은 점유율에 많은 패스를 내고도 한골에 그쳤다는 점은 반대로 동가림의 선방이 빛을 발했다는 것, 우리 팀이 구축한 촘촘한 수비망이 상대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겠다.

하여 비록 슈팅이 2회 밖에 나오지 않았고 유효 슈팅은 단 1회였지만 연변팀은 유효 슈팅 1회를 유효 골로 연결시킨, 그야말로 초효율적인 역습 축구를 했다. 상대가 강팀인 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

는 전술을 내보이며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인 셈이다.

특히 전반전 종료 직전에 로난이 문전에서 나 홀로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이미 쇄도해 들어가 있던 현지건에게 패스를 넘겨줬더라면... 상대 수비수의 압박이 적었던 현지건이 슈팅을 때렸더라면... 어쩌면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가 하는 무한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1대0으로 앞섰던 상황이었는지라 2대0으로 격차를 벌려놓았다면 더 조금만 쪽은 홈팀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만약'을 가설하고 원정에서 승점을 챙겼다는 게 보귀하다.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모조리 내렸지만 실리를 챙겼으니... 더우기는 속도를 내세운 아블레다와 현지건의 랑 측면 돌파는 선수비 후역습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무한한 가능성을 남겼다. 첫 골도 측면에서 돌파한 현지건이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승점 사냥으로 잔류에 힘을 보탠 연변팀은 다음 상대로 현재 7위에 머물러있는 석가장공부팀과 연이은 원정경기(9월 1일)를 펼친다.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실리축구를 하다 보면 녀를 수 없는 강팀도 없다는 걸 이번 경기로 증명했다. 이 기형 신임 감독 체제에서 첫 승 신고가 늦지 않게 찾아오길 바란다.

/ 김기해기자

중국·길림변경삼림마라톤 시리즈(화룡역) ‘개봉 박두’



2023년 화룡 하프마라톤 자료사진

화룡 하프마라톤대회는 2012년에 시작된 이래 7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중국육상경기협회와 국내외 스포츠 애호가들의 높은 인정을 받으면서 하프마라톤 애호가들의 성대한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심무계 보변강’(心无界 步边疆) ‘성정강’ 중국·길림변경삼림마라톤 시리즈(화룡역)가 9월 7일에 화룡에서 시작된다.

이는 또 마라톤을 통해 도전과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라톤 코스를 따라 화룡 도시 속을 지나 푸르른 산봉우리와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긴 코스를 달리는 과정에서 자신

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온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상호 주고받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 참가자들은 팀으로 뭉치는 힘과 아름다운 인성도 느낄 수 있다.

초보 새내기든, 경험 많은 마라토너든 모두에게 2024년 화룡 하프마라톤 무대가 활짝 열려있다. ‘화룡마라톤’(和龙马拉松) 위챗 공중계정과 ‘화룡발부’(和龙微发布) 위챗 공중계정을 주목하면 경기 관련 정보를 입증 확인할 수 있다.

/ 화룡하프마라톤 공식계정

연길시 ‘가운’컵 간부종업원 축구경기 결속

8월 25일,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주축구협회에서 주관, 연길시기관당사업위원회, 연길시총공회,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체육국), 연길시축구협회에서 집행한 2024 연길시 ‘가운’컵 간부종업원 축구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다. 결승에서는 연길담배공장팀이 3대1로 도시건설그룹팀을 꺾고 우승했다.

이번 연길시 간부종업원 축구경기는 처음으로 7인제에서 11인제로 변경되었으며 진 가두, 시 직속 기관과 기업 및 사업단위의 28개 부문, 17개 팀의 근 400여명의 선수들이 적극 참여했다. 경기를 통해 전 시 간부종업원들의 여가 문제생활을 풍부히 하고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연길과 활력기관 건설을 추진했다.

‘가운’컵 간부종업원 축구경기는 연길시 간부종업원들이 맞는 제4회 축구대회이다. 지난 4년간 루계로 153개 단위가 광범위하게 참여했고 112개 팀이 240경기에 참가했으며 참가자수가 연인수로 근 2,000명에 달했다. 이 대회는 이미 연길시 각 업종, 여러 민족이 어울려 경기를 펼치는 체육활동으로 되었는바 참가자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심판을 존중하고 관객을 존중하면서 우수한 경기공격과 문명한 레의를 유지했음은 물론 경기장에서도 도덕적으로든 모두 민족단결 한가족의 두터운 감정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36차례의 경기를 거쳐 연길시 수리국, 생태국, 연룡도신구 연합팀이 3위를 차지했다. 연길시도시건설그룹이 준우승을 하고 연길담배공장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 연길뉴스넷



중국남자축구팀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 발표...고준익 승선

21일, 중국남자축구팀이 2026년 미국·캐나다·메히코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18강 경기에 참가할 27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무뢰, 왕대뢰 등 핵심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되었고 상해선화 미드필드 왕해건이 처음으로 입선되었다. 조 선족 선수 고준익도 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명단 가운데 상해선화팀에서 도합 8명 선수가 입선되고 산둥태산과 상해해항에서 각각 6명 선수와 4명 선수가 입선되었다. 감독 이반코비치는 '00 후' 선수들인 주신결, 장성룡, 사문능, 베흐람, 왕해건 5명을 불러들였다. 귀화 선수들인 장광태, 페르난도와 아란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대대표팀 명단에 비해보면 프로리그에서 규를 위반 문제로 경기 정지 처분을 받은 우세호, 구락부에서 주력 위치를 잃은 옐레손 그리고 방호, 고천의, 사유군, 왕진오 등 선수들은 명단에 없다.

이번 대표팀 18강 경기 참가 명단은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해 감독 이반코비치는 "입선된 모든 선수들이 더욱 훌륭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대표팀 소집 훈련에 오고 또 이 기회를 빌어 팬들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본회 월드컵 예선 18강 경기에서 중국팀은 일본팀, 오스트레일리아팀,

사우디아라비아팀, 바레인팀, 인도네시아팀과 함께 C조에 들었다. 소조 1, 2위가 직접 2026년 미국·캐나다·메히코 월드컵에 진출하고 소조 3, 4위는 추가 경기 참가 기회를 얻게 된다.

대표팀은 9월 5일에 18강 경기 첫 상대로 일본팀과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어 9월 10일에 대련 홈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진하게 된다.

이반코비치는 "본회 월드컵 아시아지역 참가 명액은 8.5개로 어느 팀이나 다 아주 좋은 기회이다. 중국팀의 최종 목표는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조의 상대팀들이 아주 강하므로 과정은 매우 간고할 것이다. 팀은 경기마다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7명 선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해선화: 포아웅, 장성룡, 양택상, 주신결, 왕해건, 사봉비, 서호양, 페르난도.

산둥태산: 왕대뢰, 고준익, 류양, 황정우, 리원일, 사문능.

상해해항: 안준룽, 장광태, 위진, 무뢰.

북경국안: 리뢰, 림량명, 장옥녕.

무한삼진: 류진좌, 천진진문호, 한봉비.

절강: 정진, 하남: 왕상원.

심수신봉성: 베흐람, 청도서해안: 아란

/ 신화사